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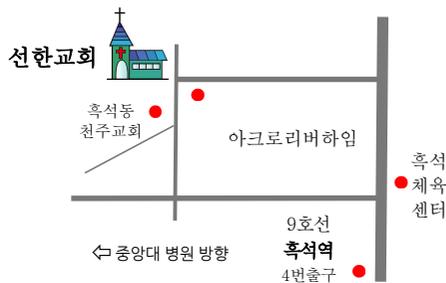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0:00 남전도회 오후 2: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b>금 요 기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b>담 임 목 사 임 춘 배</b> 교육목사 김진만 교육전도사 윤영 협력전도사 오호남	<b>국 내 선교 사 협 력 교 회</b>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b>은 퇴 장 로</b>	고 상 돈, 김 대 희 박 희 태, 유 신 웅	<b>해 외 협력 선교 사</b> 이금춘, 김인실 조나단, 강야엘
<b>장 로</b>	윤 호 중 (집사장) 조 윤 익, 박 영 근 조 계 승, 이 태 수 편 도 선	<b>관 리 장 로</b> 손 석 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b>표 어</b>	<b>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10:12)</b> Break up your fallow ground		
<b>실 천 사 항</b>	예배회복	말씀/기도회복	선교사의 삶 회복
<b>삶 의 방 식</b>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느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살전 1:10)



담임목사 임 춘 배

<b>오 전 예 배</b>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43장 (통일찬송가 57장)	
교 독 문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찬 양 과 경 배	455장 (통일찬송가 507장)	
기 도	편 도 선 장로	정예영 청년
특 송	<b>[행복]</b> 김재준, 이태수, 정구원, 편도선	
말 씬 봉 독	데살로니가전서 1장 6~10절	롬2:25-29
설 교	<b>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b> (임춘배 목사)	<b>내 앞에 홍해가 있기에</b> (김진만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정예영 회장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 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b>수 요 예 배</b>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8:1-9)

<b>교회소식</b>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선 교 보 고**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조나단 선교사님의 설교 및 선교보고가 있습니다.
- 2. 예 배 안 내**
  - 1.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로 나누어 대면예배로 드리고 영상을 제공합니다.
  - 2.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기도회를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금요기도회 영상 제공합니다.
  - 3.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 4.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3차)  
(범위 : 이사야 26장 ~ 예레미야 7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b>한주간의 기도제목</b>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한주가 되도록
----------------------	---

찬송 : '교회의 참된 터는' 600장(통 242)

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고린도후서 5장 16~18절

말씀 :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정의는 고대 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됐고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것을 받아들여 자신의 교회론을 펼칩니다.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처의 모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칼뱅은 이 교회에 이름과 외형만 있고 그리스도는 없는 위선자도 많다 설명합니다. 특히 그는 당시 교황주의자들의 주장, 즉 보이는 교회(로마가톨릭) 안에 들어와야만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창조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만 아시는 모든 본질적인 교회가 포함되는 매우 넓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당시 재세례파는 서방교회의 모든 전통을 허물고 교회를 급진적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가시적인 모든 교회를 쫓정어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교회의 알곡과 쫓정어를 구분하려는 시도를 위험한 것으로 봤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교회를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기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사람과 속사람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과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걸사람은 낱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16절)라는 말씀은 인간을 죽을 부분(육신)과 죽지 않을 부분(영혼)으로 나눠 대립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대립시키는 건 그냥 고난받고 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현실에서 도피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18절) 영원한 영광(17절)이 주어진다 는 걸 강조합니다. 이를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에 대입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나는 불완전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영혼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걸 바울은 신앙이라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현실, 불안정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식구만 아는 가정의 문제나 고난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이 작은 가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와 맞닿아 있게 됩니다.

제 목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살전1:6-10)

서 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 1. 본이 되는 교회

- (1)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본받는 교회(6절)
- (2) 주의 말씀(복음)과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8절)
- (3) 말씀을 배운 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9절)
- (4) 다시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교회(10절)

본 론

### 2. 교훈

- (1) 내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수 있는가?
- (2) 입으로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 (3) 이 세상의 우상보다 주님 오실 그날을 더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결 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믿음 생활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편도선 장로	윤호중 장로

매일 Q.T.		결혼과 재혼에 대한 사도적 권면	날짜 : 5월 16일
찬양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쉬 곳과		
본문	고린도전서 7:25~40		
말씀요약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고려해 처녀에게 독신을 권합니다. 결혼은 죄짓는 것이 아니지만 육신에 고난이 따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에 성도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과부가 결혼할 수 있으나 주님 안에서 할 것이며,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목상질문 1	독신의 유익 7:25~35 바울이 결혼보다 독신을 권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결혼 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목상질문 2	결혼과 재혼 7:36~40 바울은 과부에게는 어떠한 권면을 했나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한절목상	고린도전서 7장 35,37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흐트러짐 없는 마음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35절)와 '마음을 정하고'(37절)는 같은 의미입니다. 창조 원리에 따라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온전히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헌신은 온전한 드림이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을 신실하게 살되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부어 주소서.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소유의 넉넉함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고민하고 절제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사랑이 기준이다”	
찬양과 기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새 220) 주님 말씀하시면 (경배와 찬양)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1912년 32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온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서서핑 (Elisabeth J. Shepping)은 평생을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한번 전도를 떠나면 말을 타고 270킬로미터 이상을 순회할 만큼 열정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과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조선 간호부협회를 설립하고, 이일학교라는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설립한 서서핑 선교사는 1934년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습니다. 한 장뿐이던 담요도 다리 밑 가난한 자들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해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녀의 소식이 전해지자 수천 명에 이르는 광주 시민과 나병 환자가 몰려나와 ‘어머니’를 외치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남겨진 침대 머리맡에는 그녀의 신조였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Not Success But Service)’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비단 선교사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국한된 사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고린도전서 8:1~13		
목상포인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목회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가장 큰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것은 지식보다 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울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냅니다. 연약한 이들도 사랑의 원리 아래서 보호를 받고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은사를 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랑’을 제시하며(12:31; 13장), 그 자신이 먼저 사랑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에서 바울은 ‘지식’과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1절)		
적용하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릇된 지식이 아니라,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복음 전파 완주를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	날짜 : 5월 20일
찬양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본문	고린도전서 9:19~27		
말씀요약	바울은 자유인인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때로 율법 알애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처럼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경주자처럼 달리며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킵니다.		
목상질문 1	전도자의 헌신 9:19~23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전도 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목상질문 2	전도자의 절제 9:24~27 바울이 자신을 쳐 복종시키고 모든 일에 절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절제하며 최선을 다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9장 23절 '참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본래 '나누어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 행한 것은 의무감이나 이타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샘솟는 기쁨이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고역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의무가 아닌 기쁨에 있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려가면서도 모른 채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바울의 모습에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제 생각과 감정과 언행이,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는 만남이 복음의 길과 일치하게 하소서.		

매일 Q.T.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	날짜 : 5월 17일
찬양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본문	고린도전서 8:1~13		
말씀요약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하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이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우상 제물을 먹는 자유가 믿음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목상질문 1	우상에게 바친 제물 8:1~8 우상 제물 먹는 일을 두고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어떤 견해가 있었나요? 제사 음식에 대한 나의 관점은 어떠한가요?		
목상질문 2	사랑으로 행함 8:9~13 믿음이 약한 성도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결국 누구에게 죄짓는 일인가요? 다른 지체를 위해 내가 자제해야 할 권리와 자유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8장 1절 깊은 지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얕은 지식은 '사람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지식으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들을 참되게 아는 성도는 거룩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참된 신앙은 영적으로 깊은 지식을 얻어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경솔히 행동해, 믿음이 약한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 가는 만큼 성숙한 배려와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소서.		

매일 Q.T.		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자의 권리 포기	날짜 : 5월 18일
찬양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 날까지		
본문	고린도전서 9:1~12		
말씀요약	바울은 자신의 사도 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존재는 바울이 주안에서 사역한 결과로, 그가 사도임을 확증해 줍니다. 바울에게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거나,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바울이 그 원리를 쓰지 않는 것은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상질문 1	바울의 권리 포기 9:1~6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적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복음 전도에 매진하는 사역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목상질문 2	권리를 포기한 이유 9:7~12 군인, 농부, 목자는 각각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누리나요? 내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가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 경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절목상	고린도전서 9장 11절 사역자와 성도는 하나님 사랑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함으로써 성도에게 사랑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 하고, 성도는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사역자에게 사랑의 '물적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하늘 밥상을 성도에게 제공해야 하고, 성도는 사역자에게 손을 감추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과 사랑으로 내미는 손길은 사역자와 성도 서로에게 좋은 양분과 위로가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복음 전파에 혹여 걸림이 될까 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내 것이 줄어들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복음을 위한 헌신, 영혼 구원의 상급	날짜 : 5월 19일
찬양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본문	고린도전서 9:13~18		
말씀요약	주님은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받은 사명이요 부득불 할 일이기엔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값 없이 복음을 전하고,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상이라고 고백합니다.		
목상질문 1	교회의 도리 9:13~14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14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복음 사역자를 어떻게 대우하나요?		
목상질문 2	사역자의 자세 9:15~18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나님 사랑과 부르심에 압도된 성도는 어떤 일에도 핑계대지 ◦낳습니다. '부득불'은 물러서거나 회피할 수 없을 만큼 압도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의 영광스러움은 삶의 새로운 기준과 방향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죄의 비참함을 참으로 아는 성도는 복음 전하는 일에 결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대가를 바라며 섬기고, 인정을 기대하며 열심을 보였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제가 받은 '상'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합한 사명감으로 즐거이 헌신하게 하소서.		